

연재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진료수의사  
lovnai@hanmail.net

# 대관령 소녀다희와 어리버리 수의사 총각6

곁에 있어 든든해요.

저는 가끔 시간이 나면 최 수의사님과 목장 길을 따라 산책을 나갔어요. 워낙 목장이 넓다보니 목장 끝인 대관령 정상까지 두 시간도 넘게 걸려요. 그곳은 바람이 많아서 여름엔 행글라이더를 타시는 분들이 가끔 찾기도 하고 겨울엔 특공대 군인 아저씨들의 스키 훈련장이 되기도 해요. 특히 그곳에 가면 목장 사람들만이 아는 오래된 맛있는 야생 표고버섯 밭이 있어요.

최 수의사님은 밥을 직접 안 해 드시니 표고버섯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지만, 우리 엄마는 매년 수확철이면 힘들게 거기까지 올라 가서서 총각들의 맛있는 반찬을 위해 그것들을 일부러 따오세요. 총각 아저씨들은 엄마의 그런 정성을 알기나 할까요? 그리고 가을이면 엄마는 또 도토리를 잔뜩 주어다가 맛있는 도토리묵을 직접 만들기도 하세요. 가끔 전 엄마한테



## 연재

+

대관령 소녀 다희와 어리버리 수의사 총각6

“엄마! 그런다고 누가 엄마의 정성을 알아주거나 한데! 대충 시장에서 사온 걸로 요리하면 안돼?”

하고 투정부리면 엄만

“애 다희야! 저 총각들 다 집에선 귀한 자식들이нде 이곳 험하고 먼 곳까지 와서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니? 엄만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정성을 다해 밥이라도 먹고 싶단다.”

우리 엄마, 별로 말씀은 없으시지만 정말 멋진 분인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엄마가 해 주시는 음식은 모두 맛있게들 잘 먹으니 그걸로 충분 한 거지요. 뭐, 저도 엄마 옆에서 아저씨들 드릴 음식 만들기 거들 때가 정말 즐거워요. 이야기가 이상한 데로 가버렸네요. 아무튼 목장 꼭대기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과 더불어 멀리 바다까지 보이는 풍경이 정말 멋졌어요. 실컷 ‘야호’를 외친대도 누구하나 보는 이 없으니 전혀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전에 아저씨 여자친구가 데려온 진돗개들 있잖아요. 이제 다 커서 산책 나가면 우리 뒤를 졸졸 따라 다녀요. 이름은 진돌이와 진순이예요. 진돗개들이라 그런지 워낙 영리해서 멀리서 놀다가도 우리가 산책 나가면 어떻게 알았는지 금방 뒤를 따라와요.

“야, 오늘 날씨 죽인다! 저 눈꽃들 좀 봐. 간밤에 꽤 바람이 심했나봐. 나무 위에 쌓인 눈이 찬바람으로 그대로 얼어붙으면 저렇게 멋있는 눈꽃이 되네. 시련을 이겨낸 것들은 항상 다 아름다운 것 같아. 나도 이제 그런 폼이 좀 나오나 모르겠네? 다희랑 그리고 개들이랑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이 나는 정말 편하고 좋더라. 자주는 못해도 혼자 가기 심심하니, 시간나면 우리 다희도 꼭 함께 가도록 하자. 다희랑 이야기하면 워낙 어른스러워서 마치 정말 내 친구랑 이야기 하는 것 같단니까. 아저씨 어렸을 적 즐겨 보던 만화영화 중에 ‘알프스 소녀 하이디’라고 있었는데 마치 다희가 꼭 그 하이디 같아. 하이디도 다희처럼 그렇게 속이 깊고 명랑한 아이였거든.”

“하지만 전 누구랑 비교되는 건 정말 싫어요. 그냥 대관령 소녀 다희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저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린 목장 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몇 미터 앞에 멧돼지 떼가 나타났어요. 우린 난생 처음 보는 멧돼지 떼고 더구



나 눈 덮인 허허벌판인지라 무서워 어찌지도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배를 깔고 그대로 누워버렸어요. ‘멧돼지들이 제발 보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도요. 최 수의사님은 나즈막히

“다희야, 멧돼지들은 화나면 아주 사납대. 더구나 가족 같아 보이니 만일 우리가 눈에 띈다면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지도 몰라. 그래도 조용히 이대로 누워 있으면 그냥 지나갈 거야.”

그런데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졌어요. 글썄 뒤 따르던 진돗개 녀석들이 겁도 없이 그 멧돼지들의 뒤를 쫓아서 언덕 중턱 까지 몰아가지 뭐예요. 아이구! 저런 바보 같은 놈들! 가만히 있으면 중이나 갈 텐데.”

우린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얼떨결에 나타난 개에게 쫓기던 멧돼지들이 언덕 중간에서 갑자기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 뒤 돌아서서는 개들을 향해서 덤빌 듯 식식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재들 때문에 우리만 당하게 생겼네. 분명히 저 개들 도망치면 우리에게 올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다희야! 너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아저씨가 개들과 멧돼지를 유도 할 테니까, 넌 그대로 반대쪽으로 뛰어 달아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얼른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명심해라! 내가 뛰어! 하면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반대쪽으로 뛰는 거야 응? 알았지?”

그 순간은 정말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개들도 더 이상 덤비지 않고 슬슬 뒷걸음질을 치고, 멧돼지들도 조금 쫓



## 연재

+

대관령 소녀 다희와 어리버리 수의사 총각6

는 뜻있더니 그냥 뒤 돌아서서 자기들 가던 길을 다시 가는 거였어요.

“아! 멧돼지들도 다치거나 공격할 마음이 없으면 함부로 덤비지 않는가 봐! 그 동안 우리가 너무나 나쁜 쪽으로만 멧돼지를 생각했나보다. 아무튼 이제 상황 끝이네. 휴우! 심년감수했네.”

우린 서로 조용히 만세를 부르며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산책을 중단하고 그 길로 내려와서 목장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글썽 목장 사람들 중 일부가 트럭을 몰고 멧돼지를 잡으러 간 다지 뭐예요. 전혀 예상 밖의 반응에 우린 순간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그 정다운 멧돼지 가족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차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멧돼지들이 어디로 갔냐고 해서 최 수의사님은 엉뚱한 방향을 가르쳐 주더군요. 물론 그날 목장 사람들은 모두 허탕을 쳤지요. 그래도 난 오늘 하루 무척 즐거웠어요. 짜릿한 모험도 해보고 아저씨가 절 지켜주신다는 든든한 마음까지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아저씨 오늘 정말 좋았어요.’ 갑자기 오빠하고 부르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목장에서 수의사들은 꼭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축장 가는 소를 골라내고 병들어 죽은 소들을 처리하는 일이에요.

아마 처음에 최 수의사님은 그런 일들 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목장 수의사의 운명 같은 거였어요. 주로 죽는 소들은 대부분 약한 송아지들이어요. 대개 설사나 폐렴 같은 질병들에 걸려 죽어요. 치료를 열심히 해도 원래부터 약하게 태어난 애들은 그 질병을 견뎌낼 힘조차 없어요. 그래서 목장에서는 꼭 어미의 초유를 먹이려고 해요. 초유는 어미가 새끼를 낳고 바로 나오는 누런 젖인데 거기에 면역성분이 많아 송아지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준다고 해요. 목장에서 송아지 관리는 남자보다 덩치도 크고 아주 힘이 센 강씨 아주머니가 맡고 계셨어요. 우리 엄마의 유일한 말동무이기도 하시구요. 어느 날 송아지 아주머니께서 송아지에게 문제가 있다고 진료실로 찾아오셨어요. 최 수의사님이 한번 보러 간다고 하기에 저도 옆에서 잡지를 뒤적이다 얼른 따라 나섰지요. 가보니 송아지 한 마리가 축 쳐져있고 아주머니께서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어요.

“최 수의사, 이 녀석 좀 치료해줘. 어제부터 계속 안 먹더니 글썽 오늘은 이렇게 축 쳐져 버렸지 뭐야. 분명 태어날 때 다른 애들과 똑같이 초유도 잘 짜서 먹이고 했는데 말이야.”

“그래요. 어디 청진 한번 해 볼까요. 잠깐만 머리 좀 잡아주세요. 음! 역시 호흡소리가 꽤 거칠고 비경이 마른걸 보니 폐렴에 걸린 게 거의 틀림없네요. 요즘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유난히 폐렴 걸린 송아지들이 많네요. 연락 잘 하셨어요.

폐렴은 빨리 치료할수록 회복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제부터 저와 다희한테 송아지는 맡기시고 아주머니는 다른 송아지들 돌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호흡기병이 심할 때 전체적으로 청소량 환기랑에 좀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어요.”



“알았어! 꼭 신경 쓸게. 누구 말인데.”

실제로 최 수의사님은 이전의 다른 수의사님들보다 훨씬 더 송아지들을 잘 고쳤어요. 당연하지요. 아예 송아지가 아프면 송아지 옆에서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계시는데 당연히 잘 고칠 수밖에요. 그래서 목장 사람들이 모이면 요즘은 송아지가 잘 안 죽는다고 하면서 다 최 수의사님 덕분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그런 말을 옆에서 듣고 있으면 보조인 저마저 어깨가 으쓱해 졌어요. 그날 우린 그 아픈 송아지에게 항생제와 해열제를 주사해 주고 혈관을 통해 영양제도 넣어 주었어요.

“질병을 이겨내려면 병원균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이겨낼 체력도 키워주어야 해. 알았지?”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녀석이!” 하고 농담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오전에 일찍 가보니 송아지 상태가 더욱 나빠졌어요.

“이거 급성으로 심하게 걸린 모양이구나. 가장 좋은 약을 썼는데도 왜 전혀 차도가 없는 걸까? 애야! 제발 좀 일어나거라!”

- 6부 끝 -